

【특 집】

여진, 夷狄에서 고려의 변경민으로 —『고려사』를 통해 본 고려의 여진 인식과 관리—

허 인 옥*

차례

- I. 머리말
- II. 고려의 여진 이해: 말갈[mohoo]에서 여진[dɔʝuʝien]으로
- III. 고려의 여진 제어와 지역방어[Zone Defense]
- IV. 맺음말

국문초록

여진이란 용어는 거란이 903년에 女直을 정벌했다는 『遼史』의 기록에서 처음 나타난다. 반면 『고려사』에는 948년에 東女眞이라는 표현에서 처음 보인다.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여진을 등과 서로 구분하였다. 현종대에 잠시 고려와 거란의 전쟁으로 인해 야인들의 내투가 많아지면서, 고려가 설정했던 여진의 범위를 넘어선 이들의 내투가 이어지게 되었는데, 고려는 이들을 흑수말갈 또는 여진말갈로 표기하였다. 이후 흑수말갈은 동여진으로, 여진말갈은 서여진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이는 편의적인 구분이었을 뿐 실제로는 성과 족으로까지 나누어 세세하게 관리했다.

고려는 또 자국의 영향력 내에 존재하는 이들을 화내로, 그 밖의 지역을 화외로 구분하였다. 무산계를 받은 화내인들은 고려에 적대적인 세력에 대한 감시나 방어 또는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간고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신에 고려는 그들에게 물질적 보상이나 권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관계 등을 그 대가로 주었다. 이러한 방식은 변경과 가까운 여진인들을 경정시켜 힘을 약화시키는 거란이나 금의 지역방어 형태와 차이를 보인다. 고려는 여진인들 간의 다툼에는 중립을 지키며, 우호적인 화내여진인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식을 통해, 고려에 적대적인 여진들을 자발적

* 한남대학교 부교수

으로 감시하거나 견제하게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고려의 이 지역방어 형태는 10세기 완안부 여진이 성장하면서 고려 국경 지역의 여진인들을 흡수하게 되자 붕괴되었다. 고려와 완안부 여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완충지대가 사라지게 된 것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다.

주제어: 고려, 여진, 거란, 완충지대, 지역방어

I. 머리말

여진이란 용어는 거란이 903년에 女直을 정벌했다¹⁾는 『遼史』에서 처음 나타난다. 『요사』에는 거란에 복속한 熟女眞과 복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生女眞으로 나누기도 한다.²⁾ 견해에 따라서는 東藩으로 지칭되던 부족들은 거란의 호적에 들지 않은 생여진 계통이 대부분이었다고 보기도 한다.³⁾ 『고려사』에는 948년에 東女眞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타나는데, 동·서라는 방위를 통한 사례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려는 서여진과 동여진으로 구분하였다⁴⁾고 이해하고 있다.⁵⁾

하지만 여진을 부르는 표현은 여럿이었다. 현종대 기록에는 黑水靺鞨이나 女眞

1) 『遼史』 卷1, 太祖 序(唐 天復 3年).

2) 여진에 대한 한국학계의 연구성과는 이정신, 「고려와 북방민족관계사 연구현황」, 『10~18세기 북방민족과 정복왕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 김진곤, 「머리말」 「高麗~朝鮮前期 「邊境」 政策 研究」, 서울시립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23을, 중국 및 서구학계의 연구성과는 孫進己·張璇如·蔣秀松·于志耿, 『女真史』, 吉林文史出版社, 1987; 何光岳, 『女真源流史』, 江西教育出版社, 2004; 孫昊, 『遼代女真族羣與社會研究』, 蘭州大學出版社, 2014; 윤영인, 「10~13세기 정복왕조 역사의 기본사료와 연구현황」, 『10~18세기 북방민족과 정복왕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를 참조. 구체적인 연구성과는 해당 글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3) 崔圭成, 1995, 「북방민족과의 관계」,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317쪽.

4) 金庠基, 1959, 「女眞關係의 始末과 尹瓘의 北征」, 『국사상의 제문제』 4, 국사편찬위원회; 1974, 『東方史論叢』, 서울대학교출판부, 463쪽.

5) 고려는 당시 고려에 조공하고 있던 압록강 방면의 여진을 서여진으로, 이를 제외한 만주 전 지역에 살고있던 여진인으로 대체로 두만강 방면을 통하여 고려에 조공하던 여진을 동여진이라 통칭하여 부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李東馥, 1986, 『東北亞細亞史 研究』, 一潮閣, 60쪽).

鞞로 표기된 인물이 동여진이나 서여진으로 표기되는 사례들도 있으며, 靖宗代부터는 化內女眞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기도 한다. 용어의 변화는 대상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여진인들에 대한 용어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가 여진들을 어떻게 제어하려고 하는지에 중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은 고려가 여진을 분류하는 용어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고려가 어떻게 여진을 제어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고려의 여진 이해: 말갈[mohoo]에서 여진[dzujien]으로

葉隆禮가 지은 『契丹國志』를 보면, 여진을 混同江의 남쪽에 거주하는 숙여진과 그 북쪽에 거주하는 생여진으로 구분하였다.⁶⁾ 이에 반해 南宋의 徐夢莘이 1194년에 편찬한 『三朝北盟會編』에는 여진을 耶律阿保機代에 遼陽으로 이주한 합소관 여진을 가리키는 ‘熟女眞’, 속말갈 북쪽과 영강 동북방 지역에 거주하는 ‘生女眞’, 먼 변방 동해 부근에 사는 ‘東海女眞’, 머리카락이 노랗고 눈이 녹색인 ‘黃頭女眞’ 그리고 ‘숙여진도 생여진도 아닌 여진 세력’으로 구분하였다.⁷⁾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란에 복속한 ‘熟女眞’과 복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한 ‘生女眞’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⁸⁾

여진의 기원 또는 분류와 관련해서 『금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가-1) aisin[金]의 선조는 Mohoo[鞞]씨에서 나왔다. Mohoo는 본래 Uji[勿吉]라 불렀다. Uji는 옛 Susin[肅慎]의 땅이다. 元魏 때에 Uji 7부가 있었는데, Sumo[粟末部]·Bedzu[伯咄部]·Ancuku[安車骨部]·Funiyei[拂涅部]·Hoosi[號

6) 『契丹國志』 卷9, 道宗紀 末尾.

7) 『三朝北盟會編』 卷3, 政宣上帙3 重和 2年 正月 10日 丁巳.

8) 『金史』에는 남쪽에 있으면서 거란의 籍에 있는 이들을 숙여진, 북쪽에 있으면서 거란의 籍에 있지 않은 자들을 생여진으로 기재하였다(『金史』 卷1, 本紀1 世紀).

室部·Hesui[黑水部]·Besan[白山部]이 그것이다. 隋는 Mohoo라 칭했는데, 7부는 앞의 것과 같다. 唐初에 Hesuiimohoo[흑수말갈]와 Sumomohoo[속말갈]가 있었으나, 나머지 5부는 들을 수가 없었다.⁹⁾

가-1)은 『금사』 세기의 서술이다. 여진이 말갈과 관련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Mohoo[말갈]는 春秋戰國時代에는 Susin[속신], 漢代 이후에는 Yeru[挹婁], 南北朝時代에는 Uji[勿吉], 隋·唐時代에는 Mohoo, 遼·金·元·明代에는 Jusen[여진]이라 불린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⁰⁾ 『三國遺事』에도 『後魏書』나 『指掌圖』를 인용해 말갈과 Uji 그리고 읍루나 Susin을 모두 같은 계통¹¹⁾으로 서술하고 있다. Mohoo는 Sumo, Bedzu, Andcuku, Funiyei, Hoosi, Hesui, Besan이 있었다고 한다. 『고려사』에는 발해가 본래 Sumomohoo였다¹²⁾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여진이란 용어가 시간상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903년에 거란이 女直을 정벌했다¹³⁾는 『요사』의 기록이다. 906년에는 귀부하지 않은 동북 女直을 공격해 항복을 받았다¹⁴⁾는 기록도 찾아진다. 중국의 기록으로는 924년에 거란인들이 後唐에 와서 여진이 回鶻·黃頭室韋와 합세해 거란을 침입하였다¹⁵⁾고 한 『舊五代史』의 기록에 처음 보인다. 여진이라는 용어의 유래와 관련해서는 『大金國志』의 다음 기록이 도움을 준다.

가-1) 金國의 본명은 珠嚕準이다. 蕃語의 舌音이 와전되어 女真이 되었다. 혹은 魯爾錦이라 한다. 契丹 興宗의 이름을 파하여 또 女直이라 한다. 渤海의 別族이다. 혹은 三韓辰의 후예라 한다. 성은 那氏이다. 唐 貞觀中에 靺鞨이 中

9) 金之先 出靺鞨氏 靺鞨本號勿吉 勿吉古肅慎地也 元魏時勿吉有七部 曰粟末部 曰伯咄部 曰安車骨部 曰拂涅部 曰號室部 曰黑水部 曰白山部 隋稱靺鞨 而七部並同 唐初有黑水靺鞨·粟末靺鞨 其五部無聞(『金史』 卷1, 世紀). 번역문의 부족 명칭은 『Aisin Gurun i Suduri(만문 금사)』의 표기를 참조하였다.

10) 『松漠紀聞』 卷上, 女真·李東馥, 1986, 앞의 책, 24쪽.

11) 『三國遺事』 卷1, 紀異1 靺鞨·渤海.

12) 『高麗史』 卷1, 太祖 8年 9月 庚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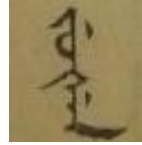
13) 『遼史』 卷1, 太祖 序(唐 天復 3年).

14) 『遼史』 卷1, 太祖 序(唐 天復 6年).

15) 『舊五代史』 卷32, 後唐 莊宗 同光 2年 9月 庚戌.

國에 와서 비로소 女眞의 명칭이 들렸다.¹⁶⁾

여진이라는 명칭은 珠嚕準이 와전되어 女眞 또는 魯爾錦이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三朝北盟會編』과 『北風揚沙錄』에도 각각 ‘朱理眞’과 ‘朱里眞’이 女眞으로 와전되었다¹⁷⁾고 기재되어 있다. 珠嚕準(zhūlūzhǔn) 또는 朱理(里)眞(zhūlǐzhēn)은 여진말 彙峯[dǔfūien]¹⁸⁾을 음차한 것이다. 淸나라 때의 檔桉에는 珠嚕準으로 표기되어 있다. 魯爾錦은 중국어로는 [lǔěrjīn]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 女眞의 현재 중국발음인 [Nǚzhēn]과 유사하다. 珠嚕準이 와전되어 ‘女眞’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¹⁹⁾ 고려 또한 여진과 말갈의 관련성을 알고 있었다. 이는 『고려사』 윤관전에 “여진은 본래 靺鞨의 遺種으로 隋와 唐 때에 고구려에 병탄되었다가 뒤에 山林과 川澤에 聚落을 형성하고 여기저기 산재하여 전체가 통일된 적이 없었다.”²⁰⁾고 서술되어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금나라[Aisin Gurun]가 건국되기 전의 인식이라 판단된다.



[그림 1] 淸시기 여진 표기

여진세력이 한반도 지역과 교류가 있었음은 886년(憲康王 12)에 狄國人, 즉 여진의 寶露國과 黑水國이 신라와 和通하고자 한다²¹⁾는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²²⁾ 신라말부터 여진의 정치세력들과의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이는 931

16) 金國 本名珠嚕準 番語舌音訛為女眞 或曰魯爾錦 避契丹興宗名 又曰女直 渤海之別族也 或曰三韓辰之後 姓那氏 唐貞觀中靺鞨來中國 始聞女真之名(『大金國志』 卷首, 大金初興本末).

17) 『三朝北盟會編』 卷3·『說郛』 卷25, 『北風揚沙錄』.

18) 金啓琮, 1984, 『女眞文辭典』, 文物出版社, 118·141쪽.

19) ‘여진’이란 명칭을 고려가 알게 된 것은 거란에서 사용하던 것이 後唐의 同光(923-925) 연간에 중국에 전해졌고, 이것이 다시 고려에 알려진 때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小川裕人, 1936, 『三十部女眞に就いて』 『東洋學報』 23-4, 561-601쪽).

20) 『高麗史』 卷96, 列傳9 尹瓘.

21)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 11 憲康王 12年 春.

22) 흑수국은 강원도 안변지역에 있던 여진족으로, 보로국은 강원도 안변군에 위치한 ‘寶龍’과 음이 유사함을 들어, 안변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李丙燾, 1977,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5쪽), 흑수국에 대해서는 발해의 북쪽에 있던 흑수말갈로 보고, 이 기록을 신라와 발해의 교섭 사실로 이해하기도 한다(金毓勳, 『渤海國志長編』 卷19, 叢考). 그런데 이 가운데 보로국은 음가상으로는 『遼史』에 등장하는 蒲盧毛朶部로 보는 것이 좀 더 그럴 듯하다.

년(태조 14)에 북변인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객사(餼)를 설치²³⁾하기도 했다는 기록에서 여진인들과의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변이 여진임을 지칭하는 것임은 『고려사』에 ‘阿兜幹’의 경우 ‘東女眞 歸德將軍’²⁴⁾ 또는 ‘東蕃酋長’²⁵⁾으로, ‘阿忽’의 경우 ‘北蕃酋長’²⁶⁾ 또는 ‘東·西女眞’²⁷⁾의 하나로 나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초부터 여진인들의 관리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었음을 말해준다. 다만 여진이라는 명칭은 948년(定宗 3)에 가서야 나타난다.

가-2) 3년 가을 9월 東女眞에서 大匡 蘇無蓋 등을 보내 말 700필과 토산물을 바쳤다. 왕이 天德殿에 나아가 말을 살펴본 후 3등급으로 나누어 값을 매겼는데, 1등 말은 은주전자 1개와 錦·絹 각 1필, 2등은 은 바리때 1개와 금·견 각 1필, 3등은 금·견 각 1필로 정하였다.²⁸⁾

가-2)는 여진인을 언급하면서 방위명을 통해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東은 일반적으로 西와 대칭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고려가 이보다 앞선 시기부터 여진인을 이렇게 구분하였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아울러 소무개는 대광이라는 고려의 관계를 대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고려가 동여진 지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도 미루어 유추할 수 있다. 여진인들이 바치는 공물인 말에 대해서, 고려는 등급을 세 단계로 나누고 거기에 맞춰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보다 앞선 시기부터 고려가 여진 통제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진인들에 대한 관리와 관련해 주목되는 기록은 崔承老가 成宗에게 올린 상서문의 “신라의 말기로부터 우리나라 초기에 이르기까지, 서북 변경의 백성들이 매

23) 『高麗史』 卷2, 太祖 14年.

24) 『高麗史』 卷6, 靖宗 8年 正月 己巳.

25) 『高麗史』 卷7, 文宗 元年 2月 丁卯.

26) 『高麗史』 卷5, 顯宗 19年 閏6月 甲寅.

27) 『高麗史』 卷5, 顯宗 20年 閏2月.

28) 三年 秋九月 東女眞大匡蘇無蓋等來 獻馬七百匹及方物 王御天德殿 閱馬爲三等 評定其價 馬一等銀注子一事·錦絹各一匹 二等銀鉢一事·錦絹各一匹 三等錦絹各一匹(『高麗史』 卷2, 定宗 3年 9月).

번 女眞 蕃騎가 오가면서 침략하고 도둑질하자, 태조께서 스스로 결단하여 한 사람의 훌륭한 장군을 보내 거기에 진수케 하였으니, 한 치의 칼도 쓰지 않고 도리어 오랑캐 무리로 하여금 와서 귀부케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변방의 티끌이 맑아지고 변경에 근심이 없어졌습니다.”²⁹⁾고 한 언급이다.³⁰⁾ 최승로의 언급은 앞서 거론한 대로 신라말부터 보로국과 같은 여진 정치세력과의 교류가 있었으며, 태조대에는 여진인들의 침입과 이로 인한 충돌과 이들을 관리하려 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최승로가 여기서 언급한 장군은 廣黔弼로 여겨지는데, 이는 923년(태조 6) 4월에 유검필이 北蕃을 招諭하니, 귀부한 자가 1,500명이었으며, 북번이 사로잡아갔던 우리 백성 3,000여 명을 돌려보냈다³¹⁾는 기록이 찾아지기 때문이다. 즉 그 이후부터 여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었다고 이해된다. 931년에 객사를 세우거나, 946년보다 앞선 어느 시기부터 보상에 차등을 두는 체계를 갖춘 것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된다.

여진인 관리와 관련해 서희가 成宗에게 “거란의 東京으로부터 우리의 安北府에 이르기까지 수백 리의 땅은 모두 生女眞에 의해서 점유되었는데, 光宗께서 그곳을 취하여 嘉州·松城 등의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³²⁾라고 말한 것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광종대 생여진이 거주하는 지역에 고려의 영토 확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광종대 고려군의 활동 범위와 관련해서는 『宋史』 고려열전의 康戩에 대한 서술이 도움을 준다. 강전이 지금의 중국 遼寧省 桓仁縣에 위치한 五女山城으로 추정되는 紇升에서 거란과 전투³³⁾를 했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광종대 고려의 영향력이 압록강 이북 지역에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알려준

29) 『高麗史節要』 卷2, 成宗 元年 6月.

30) 태조대의 기록을 보면 ‘蕃人’(『高麗史』 卷1, 太祖 元年 9月 丙申)·‘北蕃’(『高麗史』 卷2, 太祖 14年)·‘諸蕃’(『高麗史』 卷2, 太祖 19年 9月 甲午)의 사례가 찾아지는데, ‘여진 번기’라고 한 최승로의 언급을 고려하면, 번이 여진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음은 충분히 수긍된다.蕃에 대한 논의는 추명엽, 2002, 「고려전기 ‘번(蕃)’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참조.

31) 『高麗史節要』 卷1, 太祖 6年 4月.

32) 『高麗史節要』 卷2, 成宗 12年 閏10月.

33) 『宋史』 卷187, 列傳2 46 外國 3 高麗 康戩; 허인욱, 2013, 「高麗·後周관계와 光宗의 영토확장」, 『전북사학』 43, 101쪽.

다. 서희가 안북부와 거란의 동경, 즉 요동지역까지 같이 생여진이 널리 분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서희가 언급한 생여진은 고려와 거란 사이에 거주하면서도 양쪽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태조대부터 여진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했으며, 광종대에는 그동안 통제가 쉽지 않던 생여진 거주 지역까지 고려가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확장이 됐고, 그러한 결과로 소무개와 같은 여진인들이 고려의 관리체계 내에 들어왔다고 보면 큰 무리는 없는 것 같다.

물론 북방진출 과정에서 여진과의 충돌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984년(성종 3) 5월에 압록강가에 관문을 쌓게 할 때 여진의 공격을 받아 刑官御事 李謙宜가 사로잡히고 살아 돌아온 고려 병사가 1/3에 그칠 정도로 패배를 당한 적도 있었으며,³⁴⁾ 동여진을 공격하다 패한 河拱辰의 사례³⁵⁾도 있다. 이는 고려가 매년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991년(성종 10)에 “압록강 바깥에 거주하는 여진족을 白頭山 너머로 쫓아내어 그곳에서 살게 하였다.”³⁶⁾는 서술도 있어, 고려의 여진 통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압록강 밖에 거주하던 여진인들을 백두산 바깥으로 옮겨 살게 할 정도였다면, 압록강 밖의 여진지역까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려는 여진을 東과 西의 방위로 구분하였다³⁷⁾고 본다. 이 때문에 고려의 구분은 지역적인 것에 불과하며, 여진공동체의 면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³⁸⁾ 또 앞서 언급했듯이 동변으로 지칭되던 부족들은 거란의 호적에 들지 않은 생여진 계통이 대부분이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런데 현

34) 『高麗史』 卷3, 成宗 3年 5月.

35) 『高麗史』 卷4, 顯宗 元年 5月 甲申.

36) 『高麗史』 卷3, 成宗 3年 5月.

37) 金庠基, 1974, 앞의 책, 463쪽.

蔣秀松은 동·서여진의 경계는 고려의 북방진출과 관련있을 것으로 보면서, ‘长城’ 설치 이후에는 함경남도 함흥 북쪽의 赴戰嶺山脉을 분계선으로 판단했다(蔣秀松, 1994, 「‘东女真’与‘西女真’」 『社会科学战线』 1994-4期, 171쪽).

38) 孫進己, 林東錫 역, 1992, 『東北民族源流』, 東文選, 327쪽.

종대에는 동일인물이 흑수말갈이나 동여진, 여진말갈이나 서여진인과 같은 여러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다음을 보자.

가-3) ㉠ (현종 11년 정월) 丙寅 黑水靺鞨 關戶頃과 高之門 등 24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³⁹⁾

㉡ (현종 12년 9월) 乙未에 흑수말갈의 蘇勿蓋와 高之門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⁴⁰⁾

㉢ (현종 21년 5월) 乙卯에 동여진의 奉國大將軍 蘇勿蓋 등이 와서 말 9匹·과선 3艘·楛矢 58,600개와 병장기를 바쳤다.⁴¹⁾

㉣ (덕종 2년) 겨울 10월 癸巳에 東女眞의 歸德將軍 要賓과 柔遠將軍 古之門 등 37인이 내조하였다.⁴²⁾

가-4) ㉠ (현종 13년 정월) 丁亥에 黑水酋長 沙逸羅·曼投弗 등이 來朝하였다.⁴³⁾

㉡ (현종 19년) 12月 壬辰에 東女眞 沙逸羅 등이 와서 말을 바쳤다.⁴⁴⁾

가-5) ㉠ (현종 8년 7월) 己酉 女眞靺鞨의 木史가 부락을 이끌고 來朝하자, 爵과 衣物을 하사하였다.⁴⁵⁾

㉡ (현종 9년 4월 辛巳) 西女眞의 木史와 木開 등 200호가 來投하였다.⁴⁶⁾

가-3)부터 5)까지의 기록은 고려와 교류를 한 여진인 관련 기록이다. 가-3)의 고지문은 1020년과 1021년에 흑수말갈(㉠·㉡)이었다가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는

39) 丙寅 黑水靺鞨關戶頃·高之門等二十四人來獻土物(『高麗史』 卷4, 顯宗 11年 正月).

40) 乙未 黑水靺鞨 蘇勿蓋·高之門來獻方物(『高麗史』 卷4, 顯宗 12年 9月).

41) 乙卯 東女眞奉國大將軍蘇勿蓋等來獻馬九匹·戈船三艘·楛矢五萬八千六百及器仗(『高麗史』 卷5, 顯宗 21年 5月).

42) 冬十月 癸巳 東女眞歸德將軍要賓·柔遠將軍古之門等三十七人來朝(『高麗史』 卷5, 德宗 2年 10月 癸巳).

43) 丁亥 黑水酋長沙逸羅·曼投弗等來朝(『高麗史』 卷4, 顯宗 13年 正月).

44) 十二月壬辰 東女眞沙逸羅等來獻馬(『高麗史』 卷5, 顯宗 19年 12月).

45) 己酉 女眞靺鞨木史率部落來朝 賜爵及衣物(『高麗史』 卷4, 顯宗 8年 7月).

46) 西女眞 木史·木開等二百戶來投(『高麗史』 卷4, 顯宗 9年 4月).

시점에서는 동여진인(㉔·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가-4)의 사일라 또한 흑수추장(㉑)과 동여진(㉒)으로 나타난다. 흑수말갈이었다가 동여진으로 표기된 경우는 좀 더 찾아진다. 烏頭那는 1020년에 흑수말갈⁴⁷⁾에서 1033년에는 동여진⁴⁸⁾으로, 阿骨은 1027년에 흑수말갈이었다가 1028년 기록 등에서는 동여진으로 나타난다. 물론 1018년과 1021년에 동여진으로 나타나는 阿里古의 경우⁴⁹⁾에는 몇 년 뒤인 1024년에는 흑수말갈 阿梨古⁵⁰⁾로 기재되기도 했다. 이는 고려에서 흑수말갈을 동여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앞서 신라 말에 보로국과 흑수국이 동해안의 북쪽에 위치한 北嶺에 와서 교류를 요청한 것을 고려하면, 고려 또한 흑수말갈을 고려의 동쪽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그러한 결과 동여진으로 표기했다고 간주해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는 것 같다. 반면에 가-5)의 女眞靺鞨의 木史는 서여진 목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진말갈의 존재는 '여진말갈 群豆'의 사례⁵¹⁾에서 확인이 된다. 여진말갈이 서여진으로 표기된 사례는 목사 밖에 없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흑수말갈이 동여진으로, 여진말갈이 서여진으로 표기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⁵²⁾

47) 『高麗史』 卷4, 顯宗 11年 5月 乙亥.

48) 『高麗史』 卷5, 德宗 2年 10月 己亥.

49) 『高麗史』 卷4, 顯宗 9年 3月 甲辰·12年 8月.

50) 『高麗史』 卷5, 顯宗 15年 9月 甲寅.

51) 『高麗史』 卷4, 顯宗 2年 4月·9年 11月 丙寅·9年 12月 辛卯·卷5, 顯宗 17年 閏5月 甲子·20年 12月 庚寅·卷6, 靖宗 2年 4月 乙丑·卷9, 文宗 35年 9月 丁酉.

52) 동여진이 흑수말갈이나 동변으로 기록된 것은 담당한 관리나 통역관이 편지에 따라 기록한 때문으로 이해하기도 한다(崔圭成, 1995,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고려의 북진정책」 앞의 책, 264~265쪽). 하지만 현종대 거란과의 전쟁 이후에 흑수말갈 또는 여진말갈 등의 용어가 나타나는 이유를 모두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용어가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거란과의 전쟁에서 고려가 승리했다는 사실이 바탕에 깔려 있다. 고려가 거란과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한 뒤, 東黑水國(『高麗史』 卷4, 顯宗 10年 12月 庚寅)이나 弗奈國(『高麗史』 卷4, 顯宗 11年 6月 己亥) 또는 鐵利國(『高麗史』 卷4, 顯宗 12年 3月 癸巳·卷5, 顯宗 21年 4月 己亥) 등 기존에 교류 기록이 나타나지 않던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고려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종대에 흑수말갈 등의 표현이 급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이들은 기존에 고려가 파악했던 동서 여진의 범위를 벗어난 존재들이었다. 고려의 입장에서 이 세력들을 여진으로 표기할 수는 없었고 이에 역사적으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 흑수말갈을 사용해 기재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고려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정치세력 스스로가 자신들을 흑수말갈이라고 지칭했고

이와 관련해 1021년(현종 12)에 고려에 온 居蔚摩頭蓋를 ‘東女眞·黑水酋長’⁵³⁾으로 기재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여진이 흑수보다 앞서 표기된 것은 어느 순간부터 동여진이 흑수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흑수말갈이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함에도 고려가 ‘여진’을 대표 명칭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국초부터 교류를 빈번하게 해오던 이들이 여진이었고, 고려가 익숙한 명칭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⁵⁴⁾

고려가 여진을 동과 서로만 구분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록이 주목된다.

가-6) (현종) 3年 봄 2月 甲辰에 女眞의 酋長 麻尸底가 30姓 부락의 자제들을 거느리고 와서 土馬를 바쳤다. 30성은 阿干頓·尼忽·尼方固·門質老·弗遮利·居質阿·黏開逸·尼質阿·耶邏多·邀揭囉·要悅逸·鬱嚙·烏臨大·蒙骨拽·暈底憲·徒急·耶兀逸·拏乙信·拏乙晏·冬骨逸·支闍逸·魚瑟股·麼乙逸·塗沒尼·云突梨·押開伊·惱一伊·排門異·佛徐逸·滿尹伊이다.⁵⁵⁾

가-7) (현종 3년) 윤10월 여진의 毛逸羅와 鉏乙豆가 부락 30姓을 거느리고 和州에 와서 和議를 요청하므로, 이를 허락하였다.⁵⁶⁾

고려가 이를 받아들여 기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53) 『高麗史』 卷4, 顯宗 12年 7月 癸巳.
- 54) 현종대를 지나면서 여진이 고려 북방 세력의 대표명칭이 되었다고 해서 흑수말갈의 모든 세력이 여진으로 흡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문종대인 1081년에 黑水譯語(『高麗史』 卷9, 文宗 27年 7月 丙午)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흑수어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흑수말갈 또한 별도의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적어도 문종대까지 흑수와 여진이 구분되었음은 ‘舊制……若黑水·女眞 並不許入’(『高麗史』 卷9, 文宗 35年 8月 己未)이라는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된다(孫昊, 앞의 책, 2014, 119쪽). 1123년에 지어진 『高麗圖經』에도 고려 주위의 여러 정치세력을 언급하면서 金(여진)과 흑수를 별도로 구분해 기재하고 있는데(『高麗圖經』 卷3, 封境), 이 또한 흑수와 여진이 다른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허인옥, 2023, 『『東都成立記』의 九韓과 고려초 대외인식』, 『전북사학』 68, 120-122쪽).
- 55) 女眞酋長麻尸底率三十姓部落子弟 來獻土馬 三十姓曰阿干頓 曰尼忽 曰尼方固 曰門質老 曰弗遮利 曰居質阿 曰黏開逸 曰尼質阿 曰耶邏多 曰邀揭囉 曰要悅逸 曰鬱嚙 曰烏臨大 曰蒙骨拽 曰暈底憲 曰徒急 曰耶兀逸 曰拏乙信 曰拏乙晏 曰冬骨逸 曰支闍逸 曰魚瑟股 曰麼乙逸 曰塗沒尼 曰云突梨 曰押開伊 曰惱一伊 曰排門異 曰佛徐逸 曰滿尹伊(『高麗史』 卷4, 顯宗 3年 2月 甲辰).
- 56) 女眞毛逸羅·鉏乙豆率部落三十姓 詣和州乞盟 許之(『高麗史』 卷4, 顯宗 3年 閏10月).

가-6)과 7)은 1012년 기록으로, 고려가 동·서만이 아닌, 30성으로 구분하였음을 알려준다. 가-6)에 보이는 마시저는 1차례 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가-7)의 모 일라는 동여진으로 3차례,⁵⁷⁾ 서여진으로 1차례,⁵⁸⁾ 여진으로 2차례⁵⁹⁾ 나타나며, 동여진인 毛伊羅로는 2차례,⁶⁰⁾ 동여진인 慕伊羅로 1차례⁶¹⁾가 더 찾아진다. 鉏乙 豆도 동북여진⁶²⁾과 여진⁶³⁾으로 각각 1차례씩 나타난다.⁶⁴⁾

그런데 회주가 동북면에서 여진과 접하고 있는 관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12년 기록에서 언급한 30성은 서여진보다는 동여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이는 1073년에 東蕃 흑수인은 그 종이 30이므로 三十徒라 부른다⁶⁵⁾는 언급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⁶⁶⁾ 30성 여진의 존재는 명확하지 않은 데, 일찍이 小川裕人 『고려사』에 보이는 여진 부족을 『금사』에 나타나는 여진의 성씨하고 비교하여, 그 가운데 일부를 ‘尼忽(『고려사』)= 朮虎(『금사』)·尼方固=尼廬古·弗遮利=紇石列·鬱嚙=完顏·烏臨大=烏林答·蒙骨拽=蒙古·暈底憲=溫迪掀·徒怠=徒單·冬骨逸=唐括·云突梨=溫敦·押間伊=加古·排門異=裴滿·佛徐逸=蒲察’ 등과 같이

57) 『高麗史』 卷4, 顯宗 10年 8月 壬子.

58) 『高麗史』 卷4, 顯宗 12年 3月 乙酉.

59) 『高麗史』 卷4, 顯宗 3年 閏10月·卷5, 顯宗 16年 正月 辛亥.

60) 『高麗史』 卷5, 德宗 卽位年 11月 壬寅·卷6, 德宗 元年 正月 壬寅.

61) 『高麗史』 卷6, 德宗 6年 6月 乙巳.

62) 『高麗史』 卷4, 顯宗 2年 5月 乙亥.

63) 『高麗史』 卷4, 顯宗 3年 閏10月.

64) 동일인으로 파악되는 이가 여러 방위로 표기되어 나타나는 것은 이들의 이동생활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여기에 시사점을 주는 것이 조선 전기 여진인들의 이동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韓采麟·胡里改·桃溫의 3부족은 헤리룽장성 이란현 일대에서 한반도와 가까운 곳으로 남하했다고 한다(박정민, 2016, 「청조 발상지 악다리성(鄂多理城) 논의에 대한 재검토-‘둔화설’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2, 292~294쪽). 이는 조심스럽지만, 고려 전기 여진인들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동을 선택했고 그것이 다양한 방향으로 『고려사』 등에 표기되었을 가능성을 고민해 볼 수 있다.

65) 『高麗史』 卷9, 文宗 27年 5月 己酉.

66) 여진 성씨와 관련해 『三朝北盟會編』의 “그(여진) 성씨는 즉 完顏(왕을 일컫는다)·赤盞(張을 일컫는다)·那懶(高씨를 일컫는다)·排摩日·獨斥·奧敦·紇石列·禿丹·婁由·滿釁·剌·夢·剌·陀·曼·溫迪掀·棹索·撈兀·居尼漫·古·禿角·阿審·李·朮律·兀·撻·李·朮律·遇雨隆·晃兀·獨頂·阿迭·烏陵·蒲察·烏延·徒單·僕散·溫敦·龐古이다(당나라 때에 처음 挈성을 칭하였다. 唐末에 이르러 부락이 번성하였는데, 모두 30箇領이 있었다. 매 箇領은 1성을 소유하여, 모두 30성이이다(『三朝北盟會編』 卷3, 重和 2年 正月 10日 丁巳)”는 기록도 참고할 수 있다.

파악하기도 하였다.⁶⁷⁾ 여기에 王民信은 小川裕人の 논리를 받아들이면서도 여진이 받은 자료들을 활용해 자신만의 견해를 더했다. 예를 들어 尼方固와 尼龐古는 음가가 Nimaha, 徒怠와 徒單은 음가가 Tuktan으로 같다고 보고 小川裕人の 견해를 수용한 명칭들도 있지만, Fuseli가 음가인 弗遮利는 紇石列이 아닌 浦速烈로, Uyun이 음가인 鬱暘은 完顏이 아닌 兀顏으로 봐야 한다면서, 小川裕人과 달리 보는 명칭들도 존재한다고 보았다.⁶⁸⁾

30성의 위치도 견해 차이가 있다. 그 범위를 함경도의 北靑 부근이나 함흥지방의 한정된 공간으로 보기도 하며,⁶⁹⁾ 각 부가 각기 별도의 성을 가지고 있음을 근거로 이들이 좁은 지역에 거주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30부 여진 앞에 長白山이란 지명이 붙는 『요사』의 사례를 근거로 함흥평야로부터 간도나 綏芬河 지역에 걸쳐 살았다고 보기도 한다.⁷⁰⁾ 30성으로 표현된 것을 고려하면, 함흥평야보다는 좀 더 넓은 공간에 걸쳐 거주했을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는 것만은 사실이다. 다만 고려가 완안부를 인지한 것은 숙종대에 고려의 의원이 완안부에 가서 太師 盈歌의 戚屬을 치료해주고 돌아온 다음이었다⁷¹⁾는 점을 고려하면, 현종대인 1012년에는 30성의 범위에 완안부가 거주했던 지금의 중국 흑룡강성 아십하 유역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서여진의 활동범위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백두산 서쪽에서 거란 東京 일대까지를 칭하는 것으로 보는데,⁷²⁾ 이는 1017년(현종 8)에 西女眞의 措信이 거란 동경의 崇聖寺僧 道遵을 잡아 왔다⁷³⁾는 내용이 참조된다. 거란의 동경과 가까운 지역까지도 서여진인의 활동 범위 안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다.

67) 小川裕人, 1937, 앞의 논문, 568쪽.

68) 이에 대해서는 王民信, 1985, 「高麗史女眞三十姓部落考」, 『政大邊政研究所年報』第16期·2010, 『王民信高麗史研究論文集』, 臺大論文出版中心 재수록 참조.

69) 津田左右吉, 1913, 「尹權征略地域考」, 『滿鮮歷史地理』 2, 105-113쪽; 池內宏, 1937, 「高麗朝に於ける東女眞の海寇」, 『滿鮮史研究』 中世篇 2, 吉川弘文館, 265-348쪽.

70) 小川裕人, 1937, 앞의 논문, 568쪽.

71) 『高麗史』 卷12, 肅宗 8年 7月 甲辰·『金史』 卷135, 列傳73 外國 下 高麗.

72) 孫昊, 2014, 앞의 책, 60쪽.

73) 『高麗史』 卷4, 顯宗 8年 8月 壬辰.

고려의 여진 파악과 관련해 1031년에 고려에 내투한 阿豆閒에 대해 ‘東蕃 子項史의 族’으로 분류하면서 동변으로 돌려보내 머무르게 할 것⁷⁴⁾을 명한 내용이 눈에 띈다. 가-6)의 열거된 30성에 자항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族과 姓의 기준이 달랐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의 자료로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고려가 성과 아울러 족으로까지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두한을 동변지역으로 옮겨 머무르게 하였다는 사실은 여진에 대한 파악이 세세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특히 자항사족에 대한 강제이주가 가능했다는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한 고려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할 것 같다.⁷⁵⁾ 이는 거란이 동북여진으로 가는 길을 고려에 빌려줄 것을 요청했을 때, 고려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기록⁷⁶⁾에서도 살필 수가 있다.

예종대에 가서는 생여진과 함께 숙여진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앞서 생여진과 숙여진이라는 용어는 중국 자료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서희가 생여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을 언급했는데, 생여진이라는 표현은 1114년과 1115년에도 나타난다. 阿骨打를 언급하면서 ‘生女眞 完顏阿骨打’라고 한 것이다.⁷⁷⁾ 1117년에 거란의 내원성에서 고려에 보낸 첩에서도 생여진의 사용⁷⁸⁾이 확인된다. 숙여진은 예종 11년과 12년에 奚·漢人 등과 함께 거란으로부터 내투하였다⁷⁹⁾는 기록에서 찾아진다.⁸⁰⁾ 앞서 서희가 생여진을 거론한 것을 고려하면, 이때의 생여진도 그러한 인식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993년에 서희가 언급한 생여진과 예종

74) 『高麗史』 卷5, 德宗 卽位年 8月 甲申.

75) 허인욱, 2012, 「고려 肅宗·睿宗代 女眞정벌과 高句麗舊地回復意識」, 『北方文化研究』 3, 20쪽.

76) 『高麗史』 卷5, 顯宗 17年 閏5月 甲子.

77) 『高麗史』 卷13, 睿宗 9年 10月·卷14, 睿宗 10年 正月·12年 3月 辛卯.

78) 『高麗史』 卷14, 睿宗 12年 3月 辛卯.

79) 『高麗史』 卷14, 睿宗 11年 12月·12年 正月 壬辰.

80) 『요사』에는 고려와 경계인 來遠城이 본래 熟女眞地(『遼史』 卷38, 地理志2 東京道 東京遼陽府 辰州 奉國軍 來遠城)라는 서술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압록강 서안 지역의 여진도 숙여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여진과 직접 대면하고 있던 成宗代 서희의 언급을 고려하면, 적어도 당시까지는 생여진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은 듯하다.

대에 보이는 생여진은 같은 부류로 보기는 어렵다. 서희가 언급한 생여진은 압록강 방면의 여진을 말하는 것이라면, 예종대에 보이는 생여진은 완안부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예종대에 고려가 완안부 여진을 생여진으로 표기한 것은 거란이 보내온 서한에 생여진으로 표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遼東京兵馬都部署司의牒이나,⁸¹⁾ 내원성의 첩⁸²⁾ 그리고 永州管内觀察使 耶律資春 등이 가져온 조서⁸³⁾에 그러한 표기가 확인된다. 이보다 앞선 1103년의 고려 기록에 ‘東女眞太師 盈歌’⁸⁴⁾로 표기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예종대에 나타나는 생·숙여진이라는 용어는 거란의 용어를 차용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영가를 동여진으로 표기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려는 여전히 방위를 통한 구분을 선호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는 동과 서로 구분한 여진인들을 또 다시 고려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나누었다. 다음 기록을 보자.

가-8) 또 (서북면병마사가) 아뢰기를, “平虜鎮과 가까운 경계의 蕃帥 柔遠將軍 骨於夫와 覓害村의 要結 등이 보고하기를, ‘……요청하건대 狄耶好 등 5戶와 함께 契丹化內蕃人을 이끌어 覓害村으로 이주시키고 入籍하여 길이 藩屏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하여 가구 35호에 인구 252명을 얻었으므로, (이들) 版圖에 올리시기를 요청합니다. 蕃帥가 또 말하기를, ‘化內 三山村’의 골짜기와 해변에 나누어 거주하고 있는 蕃賊은 왕래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약탈하여 우리의 원수가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문하시중 崔惟善 등 13인이 논의하여 아뢰기를, “삼산촌의 적은 본래 국경을 침범한 도적이 아닌데, 지금 변군이 조정의 뜻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병력의 위세를 의지하여 사사로이 원수를 갚은 것이니, 요청하건대 포상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자, (문종이) 이를 따랐다.⁸⁵⁾

81) 『高麗史』 卷13, 睿宗 9年 10月.

82) 『高麗史』 卷14, 睿宗 10年 正月.

83) 『東文選』 卷39, 「回宣諭助伐女眞表」.

84) 『高麗史』 卷12, 肅宗 8年 7月 甲辰.

85) 又奏 平虜鎮近境蕃帥柔遠將軍骨於夫及覓害村要結等告云……請與狄耶好等五戶 引契丹化內蕃人 內徙

가-8)은 화내 삼산촌이라는 곳에 거주하는 여진인들에 대한 고려의 대우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당시 화내삼산촌의 여진인들 가운데 일부 세력이 고려의 힘에 의지해 자신들과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세력에 대해 사사로운 원한을 갚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삼산촌을 ‘化內’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기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化外’의 존재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화내’의 ‘화’는 ‘教化’의 줄임말로, 화내는 政令과 教化가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⁸⁶⁾ 이는 화내가 고려 군주의 덕에 교화된 이들이 사는 지역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화외는 고려 군주의 영향력이 미약하거나 미치지 않는 지역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⁸⁷⁾

平虜鎮의 가까운 경계에 거주하는 蕃帥 끌어부는 거란화내변인을 먹해존으로 이주시켜 입적시키고 변병으로 삼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서북면병마사는 이들을 版圖에 올릴 것을 청하였다. 판도는 한 나라의 영토를 말한다. 즉 이들을 화내로 삼자는 의견인 셈이다. 다만 화내라는 용어는 ‘거란화내변인’의 존재에서 볼 수 있듯이 꼭 고려에만 한정되어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생여진으로 표현된 아골타 세력이 거란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고려하면, 거란의 화내는 숙여진을, 화외는 생여진으로 보면 무난할 것 같다.⁸⁸⁾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여진을 크게 동과 서로 구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종대에 잠시 고려와 거란의 전쟁 결과로 인해 야인들의 내투가 많아지면서, 고려가 설정했던 범위를 넘어선 여진인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교류 과정에서 고려는 방문하는 여진인들이 자신들을 호

兎害村附籍 永爲藩屏 於是 檢得戶三十五 口二百五十二 請載版圖 蕃帥又言 三山村谷海邊分居蕃賊 殺掠往來人物 爲我仇讎……門下侍中崔惟善等十三人議奏 三山村賊 本非犯邊之寇也 今蕃軍等 不因朝旨專仗闔威 以報私讎 請勿行賞 從之(『高麗史』卷9, 文宗 27年 5月 己酉).

86)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1999, 『漢韓大辭典』 2, 753쪽.

87) 송용덕은 화내지역의 지역적 범위는 고려의 최북단 州鎮城과 긴밀이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고려가 복진을 하면서 새롭게 주진성을 설치하면, 이에 따라서 화내지역도 변화했는데, 거란과의 전쟁 이후에 ‘長城’을 설치하면서 변화가 일었고, 더 이상 복진이 어려워진 고려는 화내지역에 대한 편제 강화를 위해 장성 축조지역의 蕃戶들을 編籍하거나, 일부 女眞村을 고려의 기미주로 재편했다고 본 것이다(宋容德, 2005, 「高麗前期 國境地域의 州鎮城編制」 『韓國史論』 51).

88) 이외에 여진인을 구분하는 용어로 ‘關外’가 있었음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이바른, 2021, 「고려 전기 여진 왕래와 ‘내부(內附)’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67, 205-206쪽).

칭하는 용어, 즉 흑수말갈 또는 여진말갈로 표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고려는 다시 동여진과 서여진으로 구분하였던 것 같다. 다만 이는 편의적인 것으로, 30성 여진이나 자향사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진인들에 대한 구분과 관리는 촘촘하게 이루어졌다. 고려는 또 여진인들 가운데 자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을 화내, 그렇지 못한 지역을 화외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Ⅲ. 고려의 여진 제어와 지역방어[Zone Defense]

고려는 여진의 동향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고려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으며, 고려와 거란 사이에 개재하고 있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다만 고려는 여진인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이는 931년에 북변인들을 응대할 관사를 지으라고 하면서 태조는 “북변인은 人面獸心으로, 굶주리면 찾아왔다가 배부르면 가버리며 이익만 보면 부끄러움을 잊는다. 지금은 비록 복종하여 (우리를) 섬기지만, 쫓는 것과 등지는 것이 일정하지 않다(尙背無常).”라는 언급에서 살필 수 있다. 인면수심으로 인식한 사례는 1029년,⁸⁹⁾ 1038년,⁹⁰⁾ 1043년,⁹¹⁾ 1050년,⁹²⁾ 1117년⁹³⁾ 등의 기록에서도 찾아진다. 또한 여진인들은 탐욕스럽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존재⁹⁴⁾로도 인식되었다.⁹⁵⁾ 여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항배 무상의 사례로는 阿道間의 예를 들 수 있다.

89) 『高麗史節要』 卷3, 顯宗 20年 5月.

90) 『高麗史節要』 卷4, 靖宗 4年 5月.

91) 『高麗史』 卷6, 靖宗 9年 4月 戊戌.

92) 『高麗史節要』 卷4, 文宗 4年 12月.

93) 『高麗史節要』 卷8, 睿宗 12年 5月.

94) 『高麗史』 卷3, 成宗 4年 5月.

95) 여진인들이 탐욕스럽고 거짓말을 잘 한다는 인식은 『補閑集』에서도 찾아진다(『補閑集』 卷上, ‘天慶元年, 謝恩使金緣林有文等入宋, 皇帝接遇加等’).

나-1) (정종 2년(1036) 4월) 을축 동북여진의 수령 太史 阿道間 등 59인이 내조하였다. 유사에서 말하기를, “태사는 거란의 관직명인데, 아도간이 지금 이미 귀화하였으므로 正甫로 바꾸어 제수하십시오.”라고 하자, 이를 허락하였다.⁹⁶⁾

나-2) (문종 원년(1047) 2월) 정묘 都兵馬使가 아뢰기를, “東蕃 酋長 阿兜幹이 귀부해온 이후 오랫동안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를 배반하고 거란으로 투항하였으니 죄가 아주 큼니다. 그 일당 首領 高之問 등이 지금 蕃境에 있으니, 비밀리에 군사를 보내 체포하여 관내로 들여와서 그 연유를 심문한 뒤에 법률에 따라 죄를 내려 주시길 요청합니다.”라고 하니, 왕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⁹⁷⁾

나-1)의 阿道間과 나-2)의 阿兜幹, 앞서 자항사족으로 언급된 阿豆間 그리고 阿刀間⁹⁸⁾은 동일인물로 파악된다.⁹⁹⁾ 아도한은 1036년에 고려에 내조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거란의 태사 관직을 대유하고 있었는데, 고려는 이를 고려 관계인 정보로 바꾸어 제수하였다. 고려의 관리하에 두고자 한 것이다. 정보 아도한은 다음 해인 1037년에 동여진인으로 내조¹⁰⁰⁾한 기록이 찾아진다. 동북여진과 동여진으로 달리 기록되어 있지만, 정보라는 같은 관계를 대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동일한 인물로 이해된다. 그런데 나-2)를 보면, 12년 후인 1047년에 아도한은 거란에 다시 투항하였다. 고려가 생각할 때, 앞서 ‘끓거리면 찾아왔다가 배부르면 가버리며 이익만 보면 부끄러움을 잇는다’는 표현에 적용되는 사례인 셈이다.

하지만 고려가 ‘인면수심’이라고 인식한 태도는 여진에게 있어서는 생존하기

96) 乙丑 東北女眞首領太史阿道間等五十九人來朝 有司言 太史契丹職名也 阿道間今既歸化 請改授正甫從之(『高麗史』 卷6, 靖宗 9年 10月).

97) 丁卯 都兵馬使奏 東蕃酋長阿兜幹 內附以來 久承恩賞 背我投丹 罪莫大焉 其黨首領高之問等 今在蕃境 請密遣軍士 拘執入關 拷訊端由 依律科罪 從之(『高麗史』 卷7, 文宗 元年 2月 丁卯).

98) 『高麗史』 卷5, 德宗 卽位年 8月 甲申.

99) 林敬熙, 2003, 「高麗前期 女眞人에 대한 ‘將軍’과 鄉職 授與」, 高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 12-13쪽.

100) 『高麗史』 卷6, 靖宗 3年 閏4月.

위한 가장 중요한 책략 가운데 하나였다. 여진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려나 거란보다는 세력이 약한 현실에서 등거리 외교를 통한 생존에 유리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고려나 거란이 여진의 이러한 태도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음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인 여진으로서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봐야 한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신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거란의 태사에서 고려의 정보로 바꾸는 아도한도 있었으며, 거란의 大完이었다가 고려의 柔遠將軍을 받은 골어부의 사례¹⁰¹⁾도 있다. 관직의 교체를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현종대 압록강을 건너려는 거란군을 인도한 여진인¹⁰²⁾이나 1010년에 고려에 포로가 되어 郎官에 제수되었다가 1013년에 거란의 포로가 되자 고려의 침입로를 알려준 여진인¹⁰³⁾도 존재한다. 압록강 도강을 안내하는 여진인은 압록강 물길을 잘 아는, 다시 말해 거란 침입 이전에는 고려와 가까웠던 인물로 이해되며, 침입로를 알려준 낭관까지 오른 인물도 고려 조정에 관리까지 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고려와 가까운 인물이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개별 사례들이지만, 정치 세력들 또한 생존을 위해서는 마찬가지로였을 것이다. 거란과의 전쟁에서 고려가 우위를 점한 후, 국제질서의 주도권이 고려로 옮겨오자, 東黑水國이나 弗奈國 또는 鐵利國이 고려에 밀착하는 모습¹⁰⁴⁾에서도 그러한 태도를 엿볼 수가 있다.

고려는 여진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그들을 이적시키고 배척할 수만은 없었다. 고려와 송 그리고 거란이 대치하고 있는 국제정세에서 영향을 미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여진이 거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경우 고려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 이는 거란 또한 마찬가지였다. 1010년에 고려를 침략하면서 보낸 問罪書에 동쪽으로 여진과 결탁을 명분으

101) 『高麗史』卷9, 文宗 27年 5月 丁未.

102) 『高麗史』卷4, 顯宗 4年 5月 壬人.

103) 『遼史』卷15, 本紀15 聖宗 開泰 2年 10月 丙寅.

104) 許仁旭, 2012, 「高麗·契丹의 압록강 지역 영토분쟁 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90-91쪽.

로 제기한 것이나,¹⁰⁵⁾ 1035년에 蕭韓家奴가 興宗에게 거란 주변의 정세를 설명하면서, 거란에 복종하지 않은 존재로 고려 등을 언급하며 고려가 渤海·女直과 연계를 맺어 거란의 후환이 되고 있음을 거론¹⁰⁶⁾한 사례에서 거란 또한 여진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¹⁰⁷⁾ 여진과의 관계에 따라 고려와 거란 사이의 힘의 균형이 언제든지 깨질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여진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지리적인 이유로, 거란과 고려가 직접 충돌하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지대(Buffer Zone)의 역할 또는 거란의 침입시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파제의 역할을 담당했다. 완충지대의 역할은 성종대 고려가 여진이 양국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거란을 설득해 전쟁을 종결지을 수 있었던 데서 엿볼 수가 있으며, 방파제 역할은 현종대 전투에서 거란이 고려를 공격하기 위해 여진을 지나가다가, 전투를 벌여 대패를 당하고 귀환해야만 했던 사실에서 살필 수 있다. 물론 고려 또한 여진과 연합을 해 거란을 막았음은 물론이다.¹⁰⁸⁾ 즉 거란이 고려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여진지역을 통과해야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해 고려와 상대할 때는 아무래도 전투력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 것임은 충분히 수긍되는 것이다. 여진과의 관계 설정이 고려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였다.

고려는 여진인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만 했는데,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유화책과 강경책이다. 유화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투화 내지 향화여진에 대해서는 고려의 관직을 제수하거나 물품을 주어, 고려에 협조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관직 제수와 관련해 덕종 2년 이전에는 爵位를, 그 이후에는 職階를 수여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¹⁰⁹⁾ 948년에 소무개에게 관계를

105) 『高麗史』卷3, 成宗 12年 5月·8月.

106) 『遼史』卷103, 列傳33 文學 上 蕭韓家奴.

107) 1072년(거란 道宗 咸雍 8)에 찬술된 「耶律仁先墓誌銘」에는 高麗와 女眞 등 5國이 연합하여 거란과 전쟁을 벌였다(『全遼文』卷8, 「耶律仁先墓誌銘」)는 기록이 보이기도 한다. 거란이 고려와 여진의 연합에 신경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108) 『三朝北盟會編』卷3, 政宣上帙 重和 2年 10日 丁巳.

『契丹國志』에도 고려와 거란이 병사를 합하여 막아 거란 군사가 패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契丹國志』卷7, 聖宗 統和 28年 11月).

제수했다거나, 아도한에게 거란이 아닌 고려의 관직으로 바뀐 사례, 서여진의 弓火를 포함한 156인이 關城을 쌓을 때 공로가 있자, 官爵을 1급씩 더한 사례¹¹⁰⁾ 등이 있다. 특정인에 대한 고려의 관작 수여는 권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진 사회에서 특정인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했다고 판단된다. 또 고려는 협조적인 세력에게는 그에 상응해 물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동북여진 추장 鉏乙豆가 토물을 바치자, 의복과 은그릇을 내려주기도 했으며,¹¹¹⁾ 龜州에 거주하던 여진인 목사에게는 적을 사로잡은 공로로 명주와 베 5백 여필을 하사하기도 했다.¹¹²⁾ 고려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여진인들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해 이들과의 관계 지속을 유도했던 것이다.

강경책의 경우에는 앞서 인용한 나-2)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려는 아도한이 고려를 저버리고 거란에 다시 투항하자, 같은 여진인 수령 고지문을 통해 그를 체포해 처벌을 하고자 했다. 이러한 사례는 沙伊邏의 경우도 해당된다. 사이라는 흑수추장 沙逸羅로도 나타나는데, 그는 1022년 고려에 내조했다가¹¹³⁾ 1037년에 거란과 내통한 혐의로 체포되어 서경에 보내지기도 했다.¹¹⁴⁾ 사이라는 이후 기록에 土物과 말 등을 고려에 보낸 사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懷遠將軍이나 寧塞將軍을 수여받았던 塩漢 등은 여러 차례 변경을 침범했다가, 京館에 오랫동안 억류되기도 했다.¹¹⁵⁾ 이러한 사례는 고려가 여진과 거란의 밀착에 대해 많은 관심과 더불어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가 된다. 고려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강경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은 충분히 수긍된다.

고려는 고려에 내투하는 여진인들을 자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는

109) 朴賢緒, 1974, 「北方民族과의 抗爭」,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296쪽.

110) 『高麗史』 卷5, 顯宗 9年 10月 丁未.

111) 『高麗史』 卷4, 德宗 2年 5月 乙亥.

112) 『高麗史』 卷4, 德宗 2年 11月 辛卯.

113) 『高麗史』 卷4, 顯宗 13年 正月 丁亥.

114) 『高麗史』 卷6, 靖宗 3年 2月 己未.

115) 『高麗史』 卷6, 靖宗 11年 3月 己巳·卷7, 文宗 4年 3月 丙午; 『高麗史節要』 卷4, 文宗 4年 12月.

앞서 언급한 구주여진 목사의 사례에서 살필 수 있다. 목사는 ‘여진말갈 → 서여진 → 구주여진’으로 표기가 변화했다. 구주여진이란 표현은 귀화하여 구주에 정착한 여진인을 가리킨다고 이해된다.¹¹⁶⁾ 다른 사례로는 동여진 大相 嚮拔이 내투하자, 渤海古城에 거주하게 하거나,¹¹⁷⁾ 서여진 曼鬪를 동계에 分處시킨 경우가 있다.¹¹⁸⁾ 앞서 언급한 1010년에 거란에 침입로를 알려준 여진인의 경우에는 고려에서 낭관, 즉 문반직에까지 나아간 인물이었다. 이는 고려사회에서 고려인과 별 차이 없는 대우를 받는 이들도 존재했음을 말해준다. 물론 모든 여진인이 그러한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고려사회에서 능력을 갖춘 여진인에 한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와 적절한 보상이 따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고려는 여진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여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했다. 이는 가-8)에 보듯 거란화내여진인들을 덕해촌으로 이주시킨 후 입적하여 영원히 번영으로 삼게 해달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다. 입적은 호적에 올린다는 말로, 여진인을 고려인으로 대우함을 뜻한다. 이는 서북로병마사가 압록 동쪽으로부터 淸塞鎮 관할 하의 立石村에 이르는 지역에 거주하는 蕃人의 호구를 조사하여 보고한 기록이나,¹¹⁹⁾ 예종대 활동했던 尹彦頤(?~1149)의 “여진은 본래 우리 조정 사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臣僕이 되어 연이어 천자를 조회하였고, 국경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조정의 戶籍에 속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¹²⁰⁾라는 언급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려 경계와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여진인들은 고려의 호적에 올라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기록들인 셈이다. 화내인의 역할과 관련해서 다음 기록을 보자.

나-3) 東女眞의 寧塞將軍 冬弗老와 柔遠將軍 沙伊羅 등이 化外女眞人 80인을 인솔

116) 李根花, 1988, 「高麗前期의 女眞招諭政策」, 『白山學報』 35, 189쪽.

117) 『高麗史』 卷5, 顯宗 20年 8月 乙未.

118) 『高麗史』 卷5, 顯宗 21年 11月 乙丑.

119) 『高麗史』 卷6, 靖宗 8年 正月 庚申.

120) 「尹彦頤墓誌銘」(金龍善 篇, 1997, 『高麗墓誌銘集成』, 翰林大學校 아시아文化研究所).

하고 來朝하여 아뢰기를, “(저희가 데리고 온) 化外人은 망명되어 사납고 고약한 생각을 품고 일찍이 변경을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살펴주심을 받은 뒤로는 지난날의 잘못을 삼가 고쳤습니다. 지금 水陸의 蕃長을 이끌고 궁궐에 이르러 정성을 표하니 원컨대 邊民이 되어, 지금부터 늘 인근 적들의 동정을 살펴서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임금이 이를 가상히 여겨 특별히 금과 비단을 하사하고 등급을 내려주었다.¹²¹⁾

나-3)은 1043년 9월에 고려의 변민이 되기를 원하는 화외여진인의 내조 요청에 관한 서술이다. 이들을 인솔하고 온 이들은 영새장군과 유원장군의 무산계를 지닌 동불로와 사이라였다.¹²²⁾ 이들은 화외인과 구분되어 서술되어 있으므로, 화내인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 중 사이라는 앞선 같은 해 4월에 水陸賊首 羅弗 등 494인을 데려와 고려 조정에 조회를 요청한 적¹²³⁾이 있다. 나-3)의 사료와 같은 목적으로 데리고 온 이들로 판단할 수 있다. 나불 등도 화외인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이라는 연달아 화외인들을 내조시키고 있는 셈이 된다. 이는 무산계를 지닌 화내여진인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대목에 해당한다. 또한 사이라는 1050년에 阿加主·鹽漢 등과 함께 변인에게 납치되었던 고려의 靜邊鎮副使 皇甫冲 등을 돌려보낸 적도 있었다.¹²⁴⁾ 이 또한 무산계를 받은 화내인이 고려와 변인, 즉 화외인과의 사이에서 중간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무래도 같은 종족이기에 공감대 형성이 쉬워 화외인의 요구에 고려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대처가 가능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보편적이었는지는 사료의 부족으로 단언할 수 없다. 다만 무산

121) 庚辰 東女眞寧塞將軍冬弗老·柔遠將軍沙伊羅等 率化外人眞八十八人來朝 奏云 化外人妄懷狼戾 曾擾邊疆 泊蒙洪育 頓改前非 今引水陸蕃長 詣闕陳款 願爲邊民 自今每侯隣寇動靜以報 王嘉之 特賜金帛 加等(『高麗史』 卷6, 靖宗 9年 9月 庚辰).

122) 여진인에 대한 무산계 수여 논의는 林敬熙, 2003, 앞의 논문; 임형수, 2017, 「고려전기 女眞에 대한 武散階 授與의 양상과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51; 배재호, 2020, 「고려전기 武散階와 鄉職의 수여 배경과 운용」, 『韓國史論』 66 참조.

123) 『高麗史』 卷6, 靖宗 9年 4月 戊戌.

124) 『高麗史』 卷7, 文宗 4年 8月 辛巳.

계를 받은 화내여진인들이 화외여진인들의 고려 내투에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공감대 형성에 있어 용이하다는 점과 더불어 내조를 요청하는 화외인들의 속내를 알 수 없는 고려의 입장에서 무산계를 받은 여진인들을 통한 검증은 거치는, 즉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려는 의도에 맞았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나-3)에서 동불로 등이 화외인들이 임금의 큰 보살핌(洪育)을 받고 지난날의 잘못을 고쳤음을 고려에 진술한 것에서 살필 수 있다. 동불로 등이 고려 임금의 덕에 교화가 되어 믿을 수 있는 존재, 즉 화내인이 될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을 보증해 준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동불로 등이 화외인들이 화내인이 되는 반대급부로 고려에 인근 적들의 동정을 보고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근의 적은 고려 임금의 덕에 감화되지 않는 존재, 즉 현재 고려에 적대적이거나 또는 언제든지 적대적인 세력이 될 수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는 고려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세력의 감시가 화내여진인이 담당할 역할 가운데 하나였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고려는 화내여진인에게 물질적 보상 등을 보장해주고, 화내인들은 그 대가로 고려에 적대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다음 기록을 보자.

나-4) 서북로병마사가 아뢰기를, “지난 임인년(1062)에 蒙浦村의 적들이 우리 영토를 침입할 목적으로 몰래 平虜鎭에 들어와 折衝戍와 降魔戍 사이에 복병을 세웠는데, 化內番長 齊俊那가 이것을 알고 와서 鎭將에게 알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풀숲에 복병하여 그들을 기다렸더니 과연 적들이 돌입하였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일제히 발사하여 사로잡거나 죽인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금과 비단으로 제준나에게 후하게 상을 내려주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니, (문종이) 이를 받아들였다.¹²⁵⁾

125) 西北路兵馬使奏 去壬寅年 蒙浦村賊謀侵我疆 潛入平虜鎭 設伏折衝·降魔兩戍間 有化內番長齊俊那知之 來告鎭將 先伏兵草莽以待之 賊果突入 我兵齊發 俘斬甚多 請厚賞俊那金帛 從之(『高麗史』卷8, 文宗 18年 正月 辛酉).

나-4)는 임인년, 즉 1062년에 있었던 몽포촌의 적들이 고려의 영토를 침입할 목적으로 몰래 평로진에 들어와 복병을 둔 적이 있었는데, 이를 알아챈 화내변장 제준나가 고려에 알려 그들을 막을 수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고려의 보상은 당연히 주어졌다. 이는 화내여진인들이 고려의 적들을 감시하거나 고려에 침입하는 자들과 전투를 벌이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고려는 여진인들끼리의 다툼에 개입하는 것에는 조심을 했다. 이는 앞서 인용한 가-8)의 이어지는 내용에서 살필 수 있다. 1073년에 化內 三山村 내에 거주하는 여진인들 가운데 일부가 蕃賊으로 표현된 이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당시 삼십도의 추장들은 고려에 관리를 파견해 전투를 참관해 주기를 요청했다. 전투가 끝난 후, 당시 문하시중 崔惟善 등은 삼산촌의 변적이라고 하는 이들이 국경을 침범한 이들이 아닌데,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일부 여진 세력이 고려의 후광을 이용해 사사로이 자신들의 원한을 갚은 것으로 판단하고 보상을 하는 것에 반대를 했던 것이다.¹²⁶⁾ 고려가 여진인들 사이의 충돌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입힌다. 고려가 어느 한 쪽 편을 지지할 경우, 다른 쪽에는 공정성을 잃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가 국경을 침범하지 않는 여진인 간의 다툼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시 말하면, 고려에 적대적인 이들에 대한 화내여진의 군사행동에는 지불했음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서 Thomas J. Barfield의 관점이 도움을 준다. Barfield는 초원지역의 왕조들, 즉 거란과 금이 변경에 가까운 부족들을 자신의 제국에 편입시킨 후 보다 먼 곳의 부족을 막는 완충세력으로 이용하는 지역 방어 [Zone defense]를 채택했다고 보고 있다. 거란과 금은 유목민들의 내부 경쟁 관계를 활용하여, 큰 부족들을 파괴하기 위해 작은 부족들을 지원하고, 지원하였던 부족이 커지면 다시 다른 부족을 지원하여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나갔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은 초원지대에 강력한 인물이 출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초원의 혼란을 지속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¹²⁷⁾

126) 『高麗史』 卷9, 文宗 27年 5月 己酉.

127) Thomas J. Barfield, 1989, "The Perilous Frontier-Nomadic Empires and China-", BLACKWELL,

Barfield의 견해는 앞서 고려가 화내여진인들을 제어하는 모습에 시사점을 준다. 고려는 화내삼산촌의 일부 여진인들이 고려의 권위에 의탁해 자신들의 세력권 내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고려를 이용하자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특정 여진인들에게 대한 차별 행위로 비칠 우려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고려의 입장에서는 고려의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고려에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여진인 사이의 다툼에 가능한 개입하지 않는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모습은 나-2)의 주장 아도간의 배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그곳 수령 고지문을 이용해 처리하려는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물론 고려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국경과 가까운 곳의 화내여진인들을 활용해서 먼 곳에 위치한 화회여진인들 가운데 적대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들의 침입을 지연하는 지역방어를 선택하고 있음은 분명한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고려의 방식은 거란이나 금이 내부 경쟁을 유도해 유목세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고려는 화내여진인들 간의 다툼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고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마시저[가-6])나 모일라와 조을두[가-7]) 또는 동블로와 사이라[나-3]) 등의 여러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려의 지역방어 전략은 완안부 여진이 성장하여 두만강 부근으로 진출하면서 붕괴되었다. 완안부 여진이 고려 국경 부근에 거주하던 화내 여진인들을 흡수하면서, 더 이상 그 효과를 이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고려가 화내 여진인들의 이탈을 방관한 것은 아니었다. 曷懶甸 등의 여러 부족들이 완안부에 귀부하려고 하자, 불이익을 우려한 고려는 귀부를 제지하려고 하거나,¹²⁸⁾ 1104년에 定州城 밖에서 완안부와 무력충돌까지 피하지 않았던 것이다.¹²⁹⁾ 그리고 이러한 충돌은 결국 ‘윤관의 여진정벌’ 또는 ‘9성 설치’라고 부르는 고려와 여

p.183.

128) 『金史』卷135, 列傳73 外國 下 高麗.

129) 『高麗史』卷12, 肅宗 9年 2月 壬子.

진의 대규모 충돌로까지 번졌다.¹³⁰⁾ 여기에는 화내 여진인의 이탈로 인한 완충지대의 소멸과 그로 인한 고려의 지역방어 체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여진을 동과 서로 구분하였다. 현종대에 잠시 고려와 거란의 전쟁으로 인해 야인들의 내투가 많아지면서, 고려가 설정했던 여진의 범위를 넘어선 이들의 내투가 이어지게 되었다. 고려는 이들을 여진과 구분해 흑수말갈 또는 여진말갈로 표기하였다. 이후 흑수말갈은 동여진으로, 여진말갈은 서여진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이는 편의적인 구분이었을 뿐 실제로는 성과 족으로까지 나누어 세세하게 관리하였다.

고려는 또 자국의 영향력 내에 존재하는 이들을 화내로, 그 밖의 지역을 화외로 구분하였다. 무산계를 받은 화내인들은 고려에 적대적인 세력에 대한 감시 및 양측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신에 고려는 그들에게 물질적 보상이나 권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관계 등을 그 대가로 주었다. 이러한 방식은 변경과 가까운 여진인들을 경쟁시켜 힘을 약화시키는 거란이나 금의 지역방어 형태와 차이를 보인다. 고려는 여진인들 간의 다툼에는 중립을 지키며, 우호적인 화내여진인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고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고려의 이 지역방어 형태는 완안부 여진이 성장하여 고려 국경 지역의 여진인들을 흡수하면서 무너졌고, 이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서 완안부 여진과의 대규모 무력충돌로까지 이어졌다.

130) 이에 관해서는 허인욱, 2012, 앞의 논문 참조.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遼史』
『金史』
『契丹國志』
『全遼文』
『大金國志』
『高麗圖經』
『三朝北盟會編』

국사편찬위원회, 1974,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95, 『한국사』 15

金庠基, 1974, 『東方史論叢』, 서울대학교출판부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1999, 『漢韓大辭典』

李東馥, 1986, 『東北亞細亞史 研究』, 一潮閣

李丙燾, 1977,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金啓琮, 1984, 『女眞文辭典』, 文物出版社

金毓黻, 1935, 『渤海國志長篇』

孫進己, 林東錫 역, 1992, 『東北民族源流』, 東文選

孫進己·張璇如·蔣秀松·于志耿, 1987, 『女真史』, 吉林文史出版社

何光岳, 2004, 『女真源流史』, 江西教育出版社

王民信, 2010, 『王民信高麗史研究論文集』, 臺大論文出版中心

Thomas J. Barfield, 1989, "The Perilous Frontier-Nomadic Empires and China-",
BLACKWELL

김진곤, 2023, 「高麗~朝鮮前期 '邊境' 政策 研究」, 서울시립대학교박사학위논문

나영남, 2017, 「고려와 동·서여진의 관계」, 『歷史學研究』 67

박정민, 2016, 청조 발상지 악다리성(鄂多理城) 논의에 대한 재검토-‘둔화설’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2

배재호, 2020, 「고려전기 武散階와 鄉職의 수여 배경과 운용」, 『韓國史論』 66

宋容德, 2005, 「高麗前期 國境地域의 州鎮城編制」, 『韓國史論』 51

- 李根花, 1988, 「高麗前期의 女眞招諭政策」, 『白山學報』 35
- 이바른, 2021, 「고려 전기 여진 왕래와 ‘내부(內附)’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67
- 林敬熙, 2003, 「高麗前期 女眞人에 대한 ‘將軍’과 鄉職 授與」, 高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
- 임형수, 2017, 「고려전기 女眞에 대한 武散階 授與의 양상과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51
- 추명엽, 2002, 「고려전기 ‘변(蕃)’인식과 ‘동·서반’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 許仁旭, 2012, 「高麗·契丹의 압록강 지역 영토분쟁 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 허인욱, 2012, 「고려 肅宗·睿宗代 女眞정벌과 高句麗舊地回復意識」, 『北方文化研究』 3
- 허인욱, 2013, 「高麗·後周관계와 光宗의 영토확장」, 『전북사학』 43
- 허인욱, 2023, 「『東都成立記』의 九韓과 고려초 대외인식」, 『전북사학』 68
- 津田左右吉, 1993, 「尹瓘征略地域考」, 『滿鮮歷史地理』 2
- 池内宏, 1937, 「高麗朝に於ける東女眞の海寇」, 『滿鮮史研究』 中世篇 2, 吉川弘文館
- 小川裕人, 1937, 「三十部女眞に就いて」, 『東洋學報』 24-4
- 蒋秀松, 1994, 「‘东女真’与‘西女真」, 『社会科学战线』 1994-4期

투고일: 2024년 02월 25일 심사완료일: 2024년 04월 22일 게재확정일: 2024년 04월 22일

■ Abstract ■

Goryeo's Governance of the Jurchen : Insights from the *Goryeo Annals*

Heo, In-uk (Hannam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volving strategies of the Goryeo dynasty for managing relations with the Jurchen, a significant ethnic group on its borders, as recorded in historical texts. The first documented appearance of the Jurchen in 903 in the Liaoshi occurred during their conquest, referred to as "Nüzhen" at the time. By 948, the *Goryeo Annals* referred to them as "Dong Yuzhen," marking the start of Goryeo's differentiated approach to the eastern and western Jurchen. King Hyeonjong's reign saw intensified conflicts with the Khitan, which exacerbated internal divisions among the Jurchen, leading to their classification as "Heuksu Malsal" or "Yujin Malsal." These designations subsequently evolved into Dong Jurchen and Seo Jurchen, reflecting Goryeo's strategic and detailed management of these tribes and clans. Goryeo distinguished those within its influence as "Hwanae" and those outside as "Hwawei." The Hwanae Jurchen, often in a state of discontent, served crucial roles as intermediaries, monitoring, or defending against hostile factions in exchange for material rewards and authority from Goryeo. This approach differed from that of the Khitan or Jin, who often instigated conflicts among neighboring Jurchen in order to weaken them. Goryeo maintained neutrality in Jurchen disputes and supported cooperative Hwanae Jurchen with benefits, encouraging them to oversee and restrain hostile Jurchen factions on a voluntary basis. However, this regional defense strategy collapsed in the 10th century when the Wan'anbu Jurchen expanded, absorbing other Jurchen along Goryeo's borders, which led to significant military confrontations. This study illuminates the complex strategies of boundary management and identity formation in pre-modern Northeast Asia, offering new insights into the geopolitical frameworks of the period.

Key words: Goryeo, Jurchen, Khitan, Buffer Zone, Regional Defense